

마지막으로 장시간 회사를 비웠음에도 굳건히 회사를 지켜주는 하
선중 실장님, 정명규 실장님, 삽도를 그려주신 장유나 대리님, 원종민
주임님, 이인희 사원님, 지표를 세심히 찾아주신 이승철 사원님, 심재
홍 사원님께 더없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조경기술사사무소 후네스와 상명대학교 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
원하며, 이 논문을 계기로 생태·문화도시 평가 및 조성 계획 시에
우리 분야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글을 마치
고자 합니다.

2018년 1월 늦은 밤...

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...^^ 최 송 훈